



Year A 1분기

# MY BIBLE LESSONS

## 5. 아주 특별한 선물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예요. 하나님께서 이날을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안식일은 아주 특별하죠. 하나님은 안식일에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 보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정성껏 안식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 일요일

**하** 나님은 이 세상 창조하시는 일을 모두 마치셨어요. 단지 옛세 밖에 되지 않는 날들 동안 수많은 사랑스러운 것들을 만드셨죠. 창조의 육일 동안 매일 어떤 것들을 만드셨는지 기억하나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랑스러운 것들을 보고, 에덴동산 집을 거닐며 너무나 행복했어요. 초록 잔디가 굉장히 부드러웠기 때문에 신발을 신을 필요도 없었어요. 맨발로 부드러운 잔디를 걸으며 산책했어요.

덤불숲과 나무에는 맛있는 음식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들은 사과, 망고, 오렌지, 복숭아 등 여러 가지 과일을 먹을 수 있었어요. 모든 종류의 과일을 다 먹어보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겠지요?

나뭇가지 사이로 크고 밝은 색의 앵무새가 행복한 노래를 부르며 이리저리 놀고 있었어요. 작은 벌새는 길고 빨간 나팔꽃에서 달콤한 과즙을 마시고 있었어요. 회색의 보송보송한 다람쥐는 종종거리며 나무를 타고 오르고, 얼룩 다람쥐는 먹이를 찾아 바쁘게 땅 위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호수는 물이 너무 깨끗하고 맑아서 물 안을 훤히 볼 수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맑디 맑은 호숫가를 산책하면서 물속에서 헤엄치는 예쁜 은색 물고기와 물가를 떠다니는 거북이를 볼 수 있었어요. 아마도 거북이들은 물가의 하얀 모래에서 발가락을 꼼지락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코끼리, 하마, 코뿔소나 기린 등 큰 동물들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온순하고 다정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사자와 호랑이의 부드러운 털을 어루만질 수도 있었답니다!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었을까요!



© Sherry Boetcher

### 월요일

**정** 말 완벽한 일주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참 좋다고 하셨어요.

마침내 그 금요일 저녁,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일몰을 본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그 광경에 감탄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밤이 되자 그들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빛나는 달과 반짝거리는 별빛 아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며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흐뭇하게 미소 지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루가 아름답게 시작되고 마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할 것을 아셨거든요.

하루는 언제 시작되나요? **창세기 1:5 후반부** 아! 성경은 해가 질 때 하루가 마무리되면서 그다음 날이 시작된다고 말하네요! 어른들은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날이 저물었다'라고 말해요. 성경 말씀대로 하

루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아침에 해가 뜰 때 하루가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해가 질 때 이미 다음 날이 시작된 거로군요! 편안하게 잠을 자고 휴식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신가요? 그럼 일주일에는 며칠이 있나요? 맞아요! 칠일이죠? 그래서 금요일에 해가 질 때 여섯째 날이 끝나고 일곱째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곱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부르셨어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가 질 때 시작되고, 토요일에 해가 질 때 끝나요. 기억하기 쉽죠?



## 화요일

**일** 주일 중에 최고로 좋은 날인 안식일이 있어서 아담과 하와는 정말 신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무엇을 하셨나요? 성경에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창세기 2:2,3**

하나님이 쉬셨다니요? 하나님이 너무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전혀 피곤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모두 마치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 쉬셨어요. 더 이상 새롭게 창조해야 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곱째 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날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과 함께 보내실 아주 특별한 날이었어요.

이제 그 첫째 안식일이 어땠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새롭고, 신선하고 아름다웠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가 있었답니다. 그들은 그들을 방문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스러운 노래를 부를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과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우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보고 이야기하다니, 정말 멋진 일이었겠죠?

아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에 대해 질문도 많이 했을 거예요. 또한 그들의 하늘 집에 대해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함께 생명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거나 깨끗한 시내에서 물을 마시기도 했겠죠?

매주 일곱째 날은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특별한 안식일이예요. 아담과 하와는 틀림없이 일주일 내내 그날을 기다렸을 거예요!

## 수요일

**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들이었고, 그중에서 가장 최고의 선물은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안식일을 만드셨나요? **마가복음 2:27**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일곱째 날이 다른 여섯 날과는 전혀 다른 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매일 일하고 노는 일상이 매우 바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생각할 시간을 반드시 가질 수 있도록 하셔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특별한 날로 안식일을 정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다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출애굽기 20:11**

안식일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어요. 우리는 그분을 ‘창조주’라고 불러요.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고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사람의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랍니다. **요한계시록 4:11**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며 함께 예배드리면 정말 행복한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세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일주일 중 하루를 통째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죠?



## 목요일

**히** 하나님은 옛세 동안 만들기 계획하신 모든 것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 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본을 따르며 그분께 순종하기를 바라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일상의 분주한 일들을 안식일이 되기 전에 모두 마쳐야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안식일에 휴식을 취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준비할 수 있어요. 일주일 간 어떻게 안식일을 준비할 수 있나요? 미리 조금 더 많은 양의 음식을 요리해두면 안식일에 요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요. 우리의 제일 좋은 옷이 깨끗하게 입을 준비가 되어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어요. 집을 청소하거나 차를 세차하고 빨래를 개어 놓을 수도 있어요. 미리 쇼핑을 다녀오고 잔디를 깎아 둘 수도 있죠.

성경은 금요일에 특별한 이름을 주었어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3:54** 바로 ‘예비일’이에요. 이 날은 안식일을 예비하는 특별한 날이지요. 우리가 매일 보는 장난감이나 책들을 정리하고 조금 일찍 목욕을 해요. 준비를 다 마치고 안식일을 맞이하면 안식일은 훨씬 더 기분 좋고 행복한 날이 되겠죠?

금요일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모든 일을 멈춰야 해요. 그러면 안식일을 가족들과 함께 맞이할 수 있죠. 매주 안

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에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거나,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읽고,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어떨까요? 또 안식일 계명을 함께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지요. 서로서로 돌아가며 그 주에 감사했던 것들을 말해보거나 안식일 학교 교과를 보고 기억절을 외울 수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안식일을 맞이하는 좋은 방법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그분을 기억하는 방법들이랍니다.

## 금요일

**안**식일이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날 무얼 하면 좋을까요?

첫째로 금요일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일을 맞이해요. 그런 다음 일찍 잠자리에 들어요. 그래야 일찍 일어나 아침을 먹고 옷을 갈아입고 제시간에 안식일 학교에 참석할 수 있어요. 집에서 출발할 때 서두르거나 서로를 재촉하지 않고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일 아침, 교회에 가면 안식일 학교와 예배에 참석하여 함께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이야기도 들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지요. 그 후 특별한 점심 식사를 해요.

그런데 안식일 오후에는 무엇을 하나요? 성경이 답을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 12:12 후반부

안식일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너무 많거나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 오지 못하기도 해요.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그분들을 방문할 수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거나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거



나 꽃을 선물하면서 위로와 응원을 보낼 수 있어요. 또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한다면 그분들과 성경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죠.

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에 대해 더 깊이 배우길 원하세요. 안식일에 들판이나 숲, 또는 공원에 나가 거닐며 나무, 꽃, 동물, 새, 물고기나 곤충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 이런 멋진 고예쁜 천연계를 만드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풍풍풍 솟아날 거예요.

안식일은 정말 멋진 선물이에요! 이날은 일주일 중에 정말 최고로 행복한 날이에요!



## ♥ 기억절

Mission: 노래로 암송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옛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출애굽기 20:8-10

나는 매일 예배드리고 기억절을 암송했습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 ✋ 기도

하나님, 행복한 안식일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중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주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 생각하기

(일)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함께 보낸 첫 순간들을 상상해 보세요. 이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살 하늘나라를 그려 보세요.

(월) 일주일 중 어떤 날이 안식일인가요? 달력에서 안식일을 찾아 동그라미를 그려 보세요. 하루의 시작은 아침인가요, 저녁인가요? 안식일은 언제 시작되나요?

(화) 누가 안식일을 만드셨나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무엇을 하셨나요? 가장 행복하게 보냈던 안식일이 있나요? 이번 안식일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해 보세요.

(수) 여러분이 아는 기념일이 있나요? 안식일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일까요? 안식일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할 수 있는 즐거운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목) 금요일 해가 질 때,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내일은 금요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엄마 아빠를 도와드리겠어요?

(금) 우리 가족은 안식일 오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와 이웃들이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 어떤 오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안식일은 매주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나요?

## 🔍 더 깊이 알기

창세기 2:1-3, 출애굽기 20:8-11, 이사야 58:13, 14, 66:22, 부조와 선지자 5장(영문 p47, 48),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1권 57-60



# 부들과 친구 비디

Part 5. 에이미 쉐랄드



\*부들(Boodle)은 싱가포르와 필리핀에서 선교사 생활을 했던 저자의 애완견입니다.

**비**디를 키우는 선교사 가족이 오랜 기간 휴가를 떠났어요. 하지만 비디를 함께 데려갈 수 없었지요. 그래서 그 가족의 도우미 아주머니가 그동안 비디를 돌보아 주기로 했어요. 도우미 아주머니는 비디를 매우 사랑했어요. 가족들은 비디가 도우미 아주머니와 잘 지낼 거라 믿고 휴가를 떠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디가 이상했어요. 놀고 싶어 하지도 않고 뭘 먹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도우미 아주머니는 너무나 걱정이 되었어요. 아주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다른 선교사 가족들한테 비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모두 같이 걱정하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선교사로 온 의사 선생님도 비디를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비디가 왜 아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부들 역시 비디가 너무 걱정이 되었나 봐요. 부들은 가능한 많은 시간을 비디 옆에서 보냈답니다.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은 비디가 물조차 입에 대지 않자 모두 걱정을 했어요. 그 누구도 작은 비디가 죽는 걸 원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비디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부들도 슬퍼했어요. 부들은 조용히 킁킁거리며 발로 비디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어요. 하지만 비디는 꿈쩍도 하지 않고 검고 반짝이는 눈만 겨우 뜰 뿐이었어요.

모든 선교사들은 비디를 위해 함께 기도했어요. 그때 한 선교사 가정의 아이 하나가 나가서 그 동네의 모든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말했어요. “우리 모두 함께 비디를 중심으로 둘러서서 손을 잡고 한 명씩 돌아가며 예수님께 크게 기도해 보는 건 어때? 예수님께 비디를 다시 건강하게 해달라고 말아야!”라고 말했어요.

아이들은 모두 좋은 생각이라며 다 함께 비디가 누워있는 곳으로 갔어요. 불쌍한 비디는 겨우겨우 숨만 쉬고 있었어요. 도우미 아주머니는 아이들이 손을 잡고 비디 주변을 에워싸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부들도 거기 함께 있었죠. 그리고 모두 눈을 감고 한 명씩 비디를 다시 건강하게 해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모두 마친 후에 아이들은 눈을 뜨고 비디를 쳐다보았어요. 그때 아이들은 모두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비디는 작고 검

은 눈을 뜬 후 덩수룩한 머리를 들어 올리고는 아이들과 부들을 돌아보더니 일어나 물을 실컷 마셨답니다!

“예수님이 비디를 회복시키셨어! 예수님이 비디를 낫게 하셨어!” 아이들은 소리쳤어요! 손뼉을 치며 부모님에게 알리기 위해 집으로 뛰어갔어요! 도우미 아주머니도 너무나 기뻐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준비해 두신 맛있는 음식을 먹는 친구를 보면서 부들도 흥분한 듯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날 밤 그 동네의 모든 가정들은 예수님께서 작은 비디를 위해 멋진 기적을 행하신 것에 감사드렸어요.

비디의 가족이 휴가에서 돌아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과 특별한 온 정성을 다해 작은 강아지 비디를 돌봐주고 기도해 준 아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도우미 아주머니는 그날의 경험을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선교사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눈앞에서 보았는데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아마도 도우미 아주머니는 가서 자기 친구들에게도 모두 이야기했을 거예요. 어쩌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비디가 잠시 아프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도움이 되는 자료 : 기억절 노래, 엄마가 읽어주는 MBF 성경, MBF 성경 활동지, MBF 천연계 활동 PPT, 천연계가 소곤소곤 등  
My Bible First Korea Copyright © 2024 • Phone: 010 7285 3679 • Web: www.mybiblefirst.or.kr • E-mail: mbfkorea@mybiblefirst.or.kr

\* 따로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성경절은 개역개정 성경에서 인용되었습니다.